

성도의 빛 2  
1979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 성도의 빛<sup>2</sup> 1979

## 차 례

대관장단	행복은 가정에서.....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1
스펜서 더블류 킴볼	시빌의 권고.....진 하비옥스..... 5
엔 엘돈 태너	예언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매리온 지 롬니	부름을 받음.....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9
십이사도 평의회	질의 응답..... 17
에즈라 태프트 벤슨	나의 조상의 하나님.....린 폴 보러스..... 19
마크 이 퍼터슨	심심풀이..... 21
리그랜드 리차즈	나누는 것은 돌보는 것임..... 22
하워드 더블류 헌터	여우와 포도원.....도로시 리온..... 24
고든 비 힝클리	훌륭한 우정의 모범.....폴 에이치 던 장로..... 26
토마스 에스 몬슨	다니엘 축.....커트 하몬..... 32
보이드 케이 패커	조사 결과 선교사업의 영향력은
마빈 제이 애쉬튼	대단한 것이었다.....오슨 스콧 카드..... 35
브로스 알 맥롱키	율법에 순종해야 얻을 수 있는
엘튼 페리	복음의 축복.....로렌조 스노우 대관장..... 36
데이비드 비 웨이트	얼음을 깨고.....진 칩프린..... 41
제임스 이 파우스트	지역 지도자 메시지.....하 근수..... 43
고문	지역 소식..... 44
매리온 디 행스	
로버트 디 헤일즈	
던 엘 라슨	
리차드 지 스크트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163호, 제15권 제2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9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틸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79년  
 제15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인  
 유진 피틸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비판과 논쟁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새로운 프로그램과 낡은 프로그램을 반대하고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조직이나 새로운 조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자들의 목적이 단순히 관심을 모으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도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적인 입장에서 일하는 여러 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원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사상과 행동의 자유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반면에 단일된 교리가 고수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

본적인 원리는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제척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깊이 연구해 보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생각은 이 세상이 혼란의 세상이라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반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오늘날의 적신호의 추세를 전환시키고, 평화와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시킴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종의 반란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최근 몇 년 동안 가정에서의 생활 방식도 급변하였다

대관장단 메시지

## 행복은 가정에서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둘 사이에는 약간의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생활의 악화, 가정에서의 혼욕 및 교육의 결여 등에 대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의 책임보다는 사고나 사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중요시하는 생활 방식은 그 가족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영적인 교육과 일반 교육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기를 원하는 부모는 무관심한 부모임에 틀림 없습니다. 자녀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 자녀이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랑과 보호감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를 필요로 하고 사랑해 주는 가정을 갖고 있는 자녀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하여 방황하지 않으며, 사회에서 찾을 수 없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활의 중심을 가정에 두는 사람입니다.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또는 사업에서의 성공은 행복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자주 이야기하는 다음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데이비드 오 맥케이)

가장 행복한 여인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을 갖고 있고, 학교가 끝난 후에 곧바로 어머니에게 와서 그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자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들의 슬픔과 즐거움과 성공을 함께

나누고, 자녀들의 성취를 함께 기뻐하며, 정치, 사업, 사회 생활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선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만족스러운 새 세계의 문을 열어 주게 될 손자 손녀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여자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도시에서, 또는 나라에서 훌륭한 시민이 되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자녀를 잘 양육하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격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람을 흔들어 주는 손이 세상을 지배한다.” 여성에게서 자녀를 지역 사회에서 유능한 지도자로 양육시키고, 아들을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로, 충실한 아버지와 남편으로 준비시키며, 딸을 순결하고 합당한 아내요 어머니로 준비시키는 것보다 더 큰 목표는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시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지도자를 양육시키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으로써 세상의 그릇된 점을 빠르게 고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더 큰 사회의 기여가 또 있겠습니까!

여하한 이유에서든지 자녀를 갖지 못한 여성은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 영향을 주거나 또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재능의 분야에서 활동함으로써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되어 보지 못한 여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그들을 낳아 주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과 가정에서의 가정 교육이 없었다면 결코 지금에 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치있는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지는 못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아니면서 여러 보조 조직과 기타 사회 분야에서 현

신과 봉사로 이바지한 여성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오하이오주의 유서깊은 웨스턴 여자 대학(웨스턴 칼리지 포 워먼)에서는 오셀리아 컴튼 여사에게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 명예 박사 학위는 일반적으로 과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됩니다. 그러나 이 74세의 학위 수여자는 “컴튼 가족의 아내요 어머니로서의 훌륭한 업적”에 대하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세 아들은 미국 인명 사전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들의 아내요 어머니인 중서부 시골 여인의 보다 큰 업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농촌 출신이지만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그녀가 이룬 업적은 그녀가 추구하지 않았던 명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자 회견에서 보도 기사는 그녀의 방식을 묻고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녀의 방법은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새로운 것이고, 너무 정통한 것이어서 혁신적이며, 극히 평범한 것이어서 우리가 이미 잊었고 그래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성경과 상식을 사용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기사가 그녀의 가문에 대하여 물었을 때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좋은 점은 혈통을 따라 이어진다는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링컨의 가문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상 여러 방탕한 왕들이나 우리 나라의 ‘가장 훌륭한 가문’ 출신인 가치없는 아들이나 딸들은 가문이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의 자녀로서 상당한 가문의 자녀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가문에도 중요한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면에서의 가문입니다. 부모가 그들의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배우지 못한 이상 그 자녀는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것을 환경이라고 불러도 좋고, 환경상의 가문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여하간 그러한 것은 대대로 이어 내려갈 수 있는 가풍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가문이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가정이지요. 오늘날의 미국 생활이 겪는 비극은 다른 어느 때보다 가정이 중요시되어야 할 이 때에 가정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학교도 세계도 나쁜 가정이라는 완성품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그들의 일차적인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인을 고용하여 자녀 양육을 맡기고 있습니다. 나의 시대에는 아무리 집에 하인이 많다 하더라도 자녀는 꼭 어머니가 키웠습니다. 부모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자녀는 부모 자신보다 더 나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닦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부모는 그들을 보며 자라는 자녀들이 그들의 뒤를 그대로 밟는 것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으로 하는 바른 노동의 가치를 포함하여 자녀 양육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뒤, 기사는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바른 노동’이란 무엇입니까?”

“일 자체가 훌륭한 것이 바른 노동이

지요.”라고 그녀는 대답하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니까?”라고 기자는 질문하였습니다.

컴튼가의 어머니는 크게 외쳤다. “일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란 오직 세상의 성공뿐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종류의 성공은 유용성이나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부모가 그것을 가르치고 학교가 그렇게 가르치면, 그 결과는 돈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세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인생의 목표를 그릇된 곳에 두고 있다는 것이 불행의 원인인 것입니다.”(좋은 책에서, 브루스 비 클라크와 로버트 케이 토마스, 5: 198—202)

이것은 또 다른 부모의 중요한 책임을 지적해 줍니다. 즉 자녀에게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뿐 아니라 목표에 다다르도록 도와 주는 책임입니다. 자녀와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는 자녀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줌으로써 특별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은 가정에서의 자신의 책임을 다 완수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나 문화 활동이나 교육 등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을 잘 조직화하여 지식의 영역을 넓히고 안목을 넓히는 어머니가 자녀들 보다 잘 훈련시키고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안에서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여성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자매들에게는 이와 같이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 조직, 특히 상호부조에 참여하여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된 다양한 주제의 공과를 공부함으로써 자매들은 가정 이외의 세계와 접촉하고 경험을 갖게 되며, 동시에 주님의 사업도 돕게 됩니다. 어머니가 영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가르쳐 줄 때 지역 사회는 더욱 강대해집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치하하는 말씀에서 데이비드 오 백케이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훌륭한 결작의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쓰는 여인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와 칭송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르침을 생활에서 보이는 아름답고 건강한 아들 딸을 열심히 키운 어머니는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명예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을 만합니다. 사실, 영원한 영에 필연성을 부여받은 어머니의 고귀한 의무와 인류에 대한 봉사요. 어머니는 위대하신 창조주의 동반자인 것입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36년 5월호)

여성은 함께 교제하는 남성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년이 강직하고 자신의 덕을 소중히 아끼며 자신의 확신을 굳게 지킬 때 그녀가 한 청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실로 큼니다. 남편을 격려하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고취시켜 줄 때, 어머니는 가정의 신성함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란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큰 힘과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

# 시빌의 권고

진 하비옥스

비활동 회원 남편과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말일성도 아내의 생활 수기

**툼**과 나는—여기에서는 본명을 사용  
하지 않겠습니다—20여년 전에 신  
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한두 달 지난 후부터 톼은 비활동 회원  
이 되었습니다.

낙담과 실망이 나를 무겁게 짓누른  
때도 여러 번 있었으나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용케 넘기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나는 감사히 여깁니다.

우리가 신전 결혼을 계획할 때부터도  
나는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습니  
다. 교회에 대한 나의 헌신은 무척 깊  
었고 그것이 나의 생활의 일부를 차지  
하고 있었으며, 신전이 아니고서는 다  
른 어느 곳에서도 결혼할 수 없다는 것  
을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  
리가 일단 주님의 방법대로 결혼하면  
툼이 복음대로 생활하고 그의 신권을  
존중하게 되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  
러나 내 마음속에는 톼이 아직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을 알고 있었으며, 그때에도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의 빛을 통하여 문득 문득 두  
려움이 비쳤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현실로 나타났습니  
다. 신전의 성스러운 울타리 안에서도  
아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  
다.

처음부터 우리는 함께 무릎꿇고 기도  
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교회 모임에 참석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권의 임무도 행하지  
않으려고 온갖 구실을 찾았습니다. 나  
는 교회에 가지 않고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비참함을 느끼거나, 혼자 교  
회에 가서 비참함을 느끼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할 바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것일까?  
나는 강한 잔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  
는 복음에 대한 나의 헌신을 타협할 수  
도 없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욕  
망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어떠

한 느낌이였겠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고 상관하지도 않았습니니다.

비활동 회원 부모 밑에서 자라난 톰은 복음이 진실로 그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게다가 그는 복음과 그를 동시에 사랑하면서도 결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여자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나의 이기적인 욕구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역시 비참했고 자신에 대하여 노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일요일은 그의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늦도록 잠을 잘 수 있고, 낚시질, 골프 등을 즐길 수 있고 또는 농장을 갈 수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일요일이 주님의 날로써 중요했습니다. 거룩한 임무를 지키는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가 화를 내며 집을 나가는 빈도가 자꾸만 늘어갔습니니다. 그러면 나는 아픈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나는 톰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니다. 우리는 모두 결혼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밤, 정말 뜻하지 않게 중대한 기로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번째 아기를 임신하고 있던 나는 그날 밤 초등학교 준비 모임에 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갔습니니다. 그날의 현임 직원 공과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공과의 목적은 초등학교 직원에게 복음대로 생활하면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서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은 시험받고 증명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생활을 쉽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 매일 매일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험에 성공하기

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반대자들에 관계없이 우리가 올바른 일을 택하면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이다. 시빌의 이야기가 이 진리를 말해 준다.”

시빌은 곧 나의 관심이 되었다. 그녀와 남편 프랭크는 여러 해 동안 비활동 회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들의 만아가 열살이였을 때 일어난 사건에 관한 것이었고 그 사건은 그들을 교회로 돌아가게 하였다. (나는 우리도 10년이 되면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의심하였습니다) 프랭크의 적대감은 시빌과 자녀들의 교회에서의 발전에 따라 같은 비율로 증가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빌에게서 신전에 가고 싶은 생각이 커짐에 따라 프랭크는 더욱 뒤로 물러섰으며, 점점 이방인과 같이 되어 갔습니니다. 그녀도 나와 같은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에 파탄이 다가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도 다시 비활동 회원이 됨으로써 결혼 생활을 다시 구하여야 하는 것인가?

그녀의 감독의 해답은 나의 해답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나에게 변화할 용기가 있다면 아직 톰과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 두 사람에게 우리들의 남편은 복음을 생활 속에 지니고 있지 않고, 따라서 우리의 느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좀더 인내심을 가지십시오”라고 감독님은 권고하셨다. ‘항상 남편의 좋은 점을 생각하고, 자매님의 사랑과 감사와 그에 대한 인정을 남편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지금까지 자매님이 가지셨던 좋은 관례를 회복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자매님에게는 교회가 내적인



요구를 만족시켜 준다는 것을 남편에게 알려십시오. 남편이 자매님에게 교회를 갖게 한다면 자매님은 남편이 교회 없이 살도록 하겠다고 이해해 보세요. 모든 면에서 자매님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아내가 되십시오.’”(문을 닫지 말라, 초등학교 현임 역원 공과, 1959—60년도 140, 145—146페이지)

이 말이 내 마음에 울렸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매님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아내가 되십시오. 남편에게 자매님의 사랑과 감사와 인정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와 가졌던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자매님은 좀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감독님은 다음과 같이 재강조하면서 말을 맺으셨습니다. “주님은 자매님이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자녀에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칠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자매님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감독님은 그녀에게 주님의 약속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여호수아 1 : 9)

시빌의 이야기에서 프랭크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6년 후에 활동 회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한 가지는 시빌이 감독의 권고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생활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녀에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둘째, 마침내 주님은 프랭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 주는 갑작스러운 계기를 줌으로써 그의 주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시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

적인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내 쪽에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기적”을 위하여 6년 동안 기다린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나는 그 감독님의 권고대로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결혼 생활은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항상 인내와 희망으로 기다리기는 하였지만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가족으로서의 많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낙담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틈은 아이가 태어날 때 축복하려 하지 않았고 자녀를 침례 주거나 확인하거나 신권을 수여하거나 아플 때 축복하는 것 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정의 밤이나 가족 기도나 식사 축복이나 가족끼리의 복음 토론 등을 틈과 함께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낙담하였습니다. 틈은 아들들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농장에서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교회에서 말쑥을 하는 것을 듣지 않았고, 그들의 프로그램이나 리사이틀이나 로드쇼를 보지 않았으며, 그들과 함께 신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틈은 아들들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서 나는 이러한 결핍된 특권을 보았고, 아내로서 나는 교사나 보좌로 부름을 받을 때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는 틈이 협조해 주지 않고, 그와 함께 진실로 영적인 문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에 결코 익숙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꾸준히 활동한 결과 나는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는 신권의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찬을 들고, 주님과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경전을 공부하면서 나의 영혼을 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는 상호부조회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훌륭한 사람 중에는 시빌과 같이, 진실로 마음을 복음으로 돌이켜 요동하지 않고 깊은 신앙심을 가진 “의로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해는 종종 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과의 우정은 나의 생활의 공백을 채워 주었습니다. 톰과 내가 함께 친한 활동 회원 친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톰은 대부분의 친절한 회원 친구는 그를 개심시키려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응답은 교회에서의 활동이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축복은 찾아 왔습니다. 내가 시빌의 이야기를 듣던 날 밤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항상 많은 계획과 깊은 신앙과 많은 기도를 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을 받은 열쇠는 나의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의 응답의 또 다른 부분은, 엘마가 그의 아들을 위하여 한 것처럼(모 27:14) 내가 톰을 위하여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책임을 배우게 되었을 때 왔습니다. 나는 주님께서는 아마 톰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시지는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천사와 동등한 권능을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주의 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방법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톰은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에기치 못한” 일이 생기고 톰

이 그때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엘마는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성의 주민들을 개심시키지 못하여 슬픔으로 마음이 무거워 있을 때, 같은 천사가 다시 찾아와 그를 위안하였습니다.

“엘마여 그대가 복될지어다. 그대는 크게 기뻐할만 하니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그대는 주님의 첫번 소식을 받은 이래 주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 왔도다.”(엘마서 8:15)

우리가 진실하고 충실하다면 우리도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근심하며 친구를 위하여 슬퍼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담대하고 명랑하며 희망적으로 생활할 때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구세주를 만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였노라고 기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같은 방법을 또 택하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앞을 내다볼 수 있었다면, 나는 다른 길을 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빌의 방법은 톰에 대한 나의 사랑을 키워 주었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결혼한 훌륭한 사람을 위해 서라면 일생 동안을 기다릴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에 대한 나의 신앙은 지금도 나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나의 사랑과 남편에 대한 나의 사랑은 아직도 내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



예언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음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생** 각할 때마다 나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게 해주는 주제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고대 선지자 모로나이가 던졌던 다음 질문에 대하여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적의 날이 다한 것이라 하겠느냐?”

“혹 천사들이 인간에게 나타나기를 그쳤느냐? 혹 주가 저들에게서 성신의 권세를 거두시었느냐? 또한 시간이 지속되며 땅이 존속하며 땅 위에 단 하나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겠느냐?”(모로나이사서 7:35—36)

이 고대 예언자는 자신의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신앙으로 인하여 기적이 이루어지며, 오직 신앙으로 인하여 천사가 인간들에게 나타나 은총을 베푸는 것이어늘, 만일 이러한 일이 그쳤다고 하면 인간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음이요 만사가 헛됨이라.

“대저, 그리스도의 말씀에 좇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일이 그쳤다 할진대 이는 신앙이 또한 그친 것이다. 사람의 처지가 참혹하리니 이는 마치 구속이 마련되지 아니함과 같음이라.”(모로나이사서 7:37—38)

주님은,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그를 믿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손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마가복음 16:17—18)

이러한 기적은 지상의 주님의 교회의 증거가 되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표적은 우리 중에 흔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주 거론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겸손과 경건함으로 여깁니다. 오늘 아침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기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적 곧 매우 조용하며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항상 분명하며 그러나 간혹 묵과되는 기적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의 한 간증 모임에서 나의 한 친구는 그 주일에 직장 동료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의 친구는 항상 자신이 교회의 활동적인 충실한 회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와의 이 대화에서 교회 직책에 대한 부름에는 영적인 영감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름이란 절대적인 필요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지 영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자신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여기면서 받은 부름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가 생각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 같은 사람이 부름을 받은 것에 불쾌감을 느껴서였는지, 아니면, 간혹 있는 예로서, 교회의 부름을 마지 못해 받아들이고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한 것인지 나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교리와 성약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명령하나 인간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나의 약속을 취소하나니, 저들이 축복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때에 저들이 마음속으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나 그러한 자에게 화 있나니, 저희 상은 땅 아래로 숨어 버리며 하늘에서는 내려오지 아니할 연고니라”(교리와 성약 58: 32-33)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교회 회원의 직책 부름과 그 부름에 대한 반응에 따르는 조용한 기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한번도 겸손하게 만들지 못한 적이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름을 받도록 회원을 교회 직책에 임명하는 과정과 부름에 응할 때 그 사람에게 오는 증거입니다. 부름의 절차에 영감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말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내가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을 두번째로 뽑는 때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전에 한번 소개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내가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였는데, 스테이크 부장은 스테이크의 한 지도자 직분에 부르려고 한 사람의 이름을 모임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나는 신

학 연구원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같은 신학 연구원 교사였던 리온 스트롱 형제로부터 이 사람에 대하여 한두 번 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매우 유능한 사람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그의 부인 때문에 그가 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심술궂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이 스테이크의 관리 직분에 이 사람의 이름을 제안하고 지지를 묻자 우리 중 두 사람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잠시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다음, 아무래도 이 일을 그대로 추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면서 이 부름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곧 사태가 변경되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그 사람을 직분에 부르는 것에 대한 지지라기 보다는 스테이크 부장에 대한 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롱 형제와 나는 다른 열 명의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과 함께 그 사람을 그 직책에 부르기로 찬성한다는 뜻을 지지하였습니다.

한두 달 후,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을 때 성임 의식이 있었는데, 그때에 십이사도 평의회의 해롤드 비리 장로가 방문 역원으로 스테이크를 방문하셨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우리는 성임 의식 때문에 스테이크 본부에 모였습니다. 리 장로가 감독과 그의 보좌, 그리고 다른 역원들을 성임하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십이사도 평의회 일원으로부터 성임되기 위하여 앞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스트롱 형제가 옆에 앉은 나를 쿡 찌르면서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는



“이 교회에서는  
아무도 구하지도 않고  
아무도 사양하지도 않는 자리에  
적당한 때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내게 기대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패커 형제, 이제 이 교회가 계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리 장로는 이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는 통상적인 성임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활동과 생활과 직업에 대한 모든 축복의 말씀은 형제님께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형제님을 위한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장 길고 가장 구체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축복은 그 사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그의 아내를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나는 곧 리 장로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장로님께서 그 사람을 성임하기 전에 그에 대하여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오.”라고 그는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모릅니다. 이 방에서 처음으로 본 사람이지요.”

“그는 매우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리 장로

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스테이크 부장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리 장로님께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이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스트롱 형제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 교회가 계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았습니다.

### 선교사 부름의 기적

교회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은 끊임없이 세계 각 곳에서 조직되거나 재조직되는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임무가 한번도 흥미있지 않은 적이 없으며, 영적인 경험을 느끼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계시의 원리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로서 적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임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으로든지 가고 토요일 오후에 도착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비행기가 연착하여 늦게 도착하게

되던 모임의 일정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는 새로운 지도자에게 부름을 주어야 하고,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을 인간의 방법대로 한다면 아마 우리는 인사 신상 철을 참조하고, 점전에 점전을 거듭하며,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연교자들과 점전을 하는 등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 넓고, 스테이크의 수는 너무 많으며,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서, 단순한 문제를 제시하고, 직접적이고 긍정적이며 의심할 나위가 없는 응답을 받는 과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볼 때 늘 겸손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교회 회원의 부름과 해임의 과정이 곧 기적입니다.

정열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며 인생 자체에 매혹되어 있어 물질적인 것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이 보통인 젊은이가 기꺼이 선교사 부름에 응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인생의 십일조로써 2년동안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 기적적인 설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선교사들이 25,000여 명이 있습니다.

내가 뉴잉글랜드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선교 본부로부터 3,200킬로미터(8천리)나 떨어진 곳에서 온 선교사가 두 명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다. 평범한 십대 청소년을 택하여 선교사의 부름을 주고, 그를 성별하고는 그에게 역시 같은 십대 청년을 동

반자로 보내 주고는 한 달 동안 쓸 일 정량의 돈과 함께 그를 어딘가로 보낸다. 그리고는 그에게 데이트를 하지 말라 모든 시간을 복음 전파에만 사용하라 등등의 엄격한 선교사의 규율이 수록된 간단한 지시 사항을 준다.” 때때로 자동차를 마련받기도 합니다. 아뵤든 이러한 조건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천리 먼 곳에서 온 두 선교사는 이 교회가 그들의 교회이며, 주님이 그들의 주님이시고, 이 부름에 관계되는 간단한 과정 곧 계시는 이 교회에서 생명의 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름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추구를 제쳐 놓고 자신의 사업이나 직업을 중단하고, 정치적인 관심을 버리고, 때로는 직장에서의 상급 직위를 포기하고, 퇴직 보상금을 포기하고, 세계 여행을 포기하고, 어떠한 강요나 보상 없이, 다만 선교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물질적인 보상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몇 년 전, 내가 서부 유럽의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특정한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선교부장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물망에 올랐으나 적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때 총관리 역원의 한 사람은 여러 해 전에(한국에서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한 사람을 만났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세관에 다니는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대자 영이 그 이름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일이 촉박한 것이었으므로 우리에게 선교부를 관리하도록 전화로 부름

을 주었습니다. 몇 주 후에 나는 그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워싱턴 디 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분야에서 정상에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승진만으로 일관되어, 언젠가는 그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지위에 앉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선임 상관은 건강 때문에 정년이 되기 전에 미리 사직할 뜻을 보였으며, 바로 그 직책에 이 사람이 임직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부름이 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와 친분을 갖고 싶었으며, 그 날밤 그와 함께 있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의 상관의 보낸 글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패커 형제라는 사람에게 당신은 선교사가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내가 당신과 30년 동안 일했지만 당신은 나를 개종시키지 못했지 않소?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당신도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리석어요.”(한 마디를 빼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퇴직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일해 온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왜?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부름에 응하는 것은 부름을 준 사람의 간증과 증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간증과 증언에 따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부으로 온 후, 스페인에 있는 회원의 문제에 관한 책임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가 스페인어로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불어와 스페인어를 잘 구사하며 외교적인 수완도 가지고 있는 세관 업무를 아는 사람을 교회에서 찾으려 시도하였다면 온 세계를 뒤졌어도 찾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연히” 총관리 직원 한 분은 여러 해 전에 한국에서 만났던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 영의 속삭임

교회에서의 모든 부름에는 다음의 세 가지 일이 수반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그다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닐지라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의 속삭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주말에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에게 부름을 줄 때, 분명히 내가 미리 예고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그에게 “부장님, 이 부름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라고 묻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가 알게 된 영적인 경험에 대하여 말하고, 그래서 이 부름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 시험

다음으로 부름에 따르는 것은 시험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과 같이 여러분은 고의로 낙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군에서 복무하고 있던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일이 생각합니다. 나는 몇 년 전 우리 군인들이 외국으로부터 귀환하였을 때 이 일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나는 4년 동안 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외국에 있으면 매달 점수를 받게



됩니다. 참전하는 전투의 수대로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먼저 본국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귀국할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었고 배에 탈 수 있는 인원은 극히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일 게시판에 붙은 점수를 보면서 합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점수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귀국선에 오를 날이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게시판을 보고 마침내 귀국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바로 그날 나의 지휘관이 나를 불러들이더니 오사카로의 새로운 비행의 문을 열게 되는데 내가 조종 요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나의 감정을 터 놓았습니다. 아마 내가 그때 한 말로 충분히 군사 재판을 받을 만했을 것입니다. 경전의 말씀도 인용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휘관은 끝까지 잘 참으면서 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말이 모두 끝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뉘, 다 괜찮아. 패커. 여하튼 군은 오사카로 가는 걸세.” 그리고 나는 오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함께 지명받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47 비행기에 앉아서 이 일은 한두 주일에 끝날 일이 아니고 또다시 여러 달이 걸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속상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도대체 왜 이래야 합니까?”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동안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였고, 점수를 얻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자격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행동도 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손아귀에 넣게 되었을 때, 내가 그리도 원

했던 것은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나는 나 자신을 그런 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주님께서 그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몇 달 동안에 있었던 일들과 경험으로부터 나는 부름을 위한 준비를 갖추는 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앞을 멀리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받는 시련과 시험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 지지 능력

이 조용한 기적에 관계되는 세 번째 것은 성별과 함께 권능과 영감의 엔다우먼트, 곧 교회 직분에 부름받는 사람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는 지지 능력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사 55:8) 때때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우리 마음속으로 항거합니다.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용한 기적이 깃들여 있습니다.

클라크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아무도 구하지도 않고 아무도 사양하지도 않는 자리에 적당한 때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대회 보고, 1950년 10월)

신앙개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 회원 중에서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연에 의하여 부름을 받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올바른 영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전 2:14) 그리고 기록한 것에 대하여 비난하고 냉소적이며 비웃는 사람은 늘 불순종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나는 명령하나 인간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나의 약속을 취소하나니, 저들이 축복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때에 저들이 마음속으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하는도다”(교리와 성약 58:32-33)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계시의 원리는 끊임없이 적용되고 있는 원리임을 재강조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나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사모아에서 스테이크를 조직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모아 형제들을 접견하였습니다. 그들 중 한 지부장이 있었는데, 흰 사쓰에 벡타이를 매고, 허리에는 라바—라바를 매었으며 발은 벗은 채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스테이크를 조직하려 하는데 스테이크 부장을 찾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 사람을 추천해 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의 소리로써 알게 되었는데, 아이오나 감독님이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추천해 보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아이오 그 사람뿐입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만일 그가 할 여건이 안되거나 합당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해 보세요.” 그는 잠시 서 있더니 나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패커 형제님, 저더러 영의 증거를 그르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 훌륭한 형제님은 영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부름에 응답할 때 이같은 영을 지닐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노니,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예언자의 지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시의 원리는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매주 세계 각처에서 이러한 경험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것은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많습시다. 나는 영의 지지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주님은 하늘의 가장 먼 곳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그는 이 지상의 그의 종들에게 전혀 외인이 아니십니다. \*





플로이드 에이 젠슨, 솔트레이크  
이미그레이션 와드 감독단 제1보좌

“감독을 지지하는 것에 대하여 자주 듣게 되는데, 감독을 지지한다는 것은 다만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어떠한 종류의 협조를 감독은 필요로 합니까?”

“**다**만”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회원이 부름을 거부하거나 마지못하여 받아들일 때 감독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회원이 부름을 받아들일지라도 감독은 여전히 그가 그 일을 실제로 수행할 것인지를 걱정하게 되며, 그러한 걱정이 현실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와드에서 와드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는 회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제사 정원회 교문을 들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에게 그가 참석해야 할 모임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모임인가를 알기만 하면 그는 항상 참석합니다. 그의 부름에 해당되는 모임은 많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기꺼이 돕고 기꺼이 십리를 동행하려 합니다.

회원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와드의 중요한 활동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진 사업, 와드 대청소, 와드 사교 모임 등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활동실의 케인트를 다시 칠하려 하는데, 일요일에 회원들이 돕겠다고 약속했으나 케인트 칠을 하는 수요일에는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저으기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충실한 회원들이 있는 것을 볼 때 큰 기쁨을 느끼게 되며, 그들은 지난 주 수요일에 왔던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에도, 그 다음 주 수요일에도 올 것입니다.

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또 다른 것은 정원회와 보조 조직의 지도자들이 감독



의 결정을 지지하고 와드 전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조직에 대하여 일차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관리 직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약간의 실망을 줄 수도 있는 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결정 사항을 충실하게 수행하기에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아들에 관한 관심을 보일 때 감독에게 큰 의미를 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보내는 그 시간을 감사하게 여기고 중히 여길 때 감독은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감독이 실로 감사하게 여기는 또 다른 것은 와드 회원으로부터 얻게 되는 적절하고 솔직한 평가입니다. 프로그램이 얼마나 향상되었다거나, 성찬식 모임에서 어떤 점이 좋았다는 등 와드의 기능에 관심을 갖고 감독이 훌륭하게 일한다고 믿는다는 뜻을 보여 줄 수 있는 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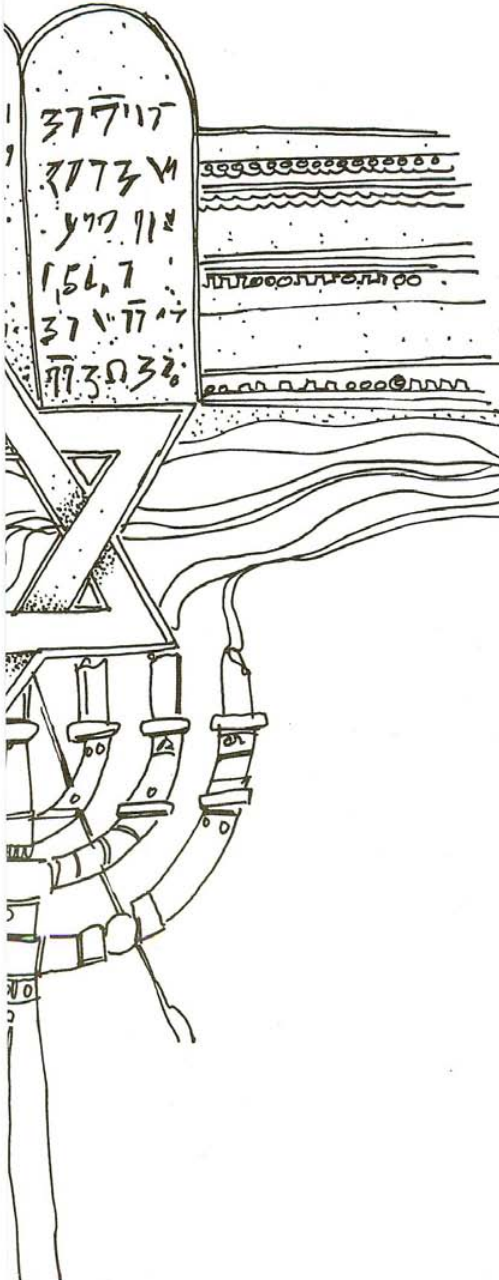
우리는 또한 비난이나 소문으로 와드 지도자들을 헐뜯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감독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지도자들에 대한 험담으로 인하여 와드 조직이 해를 받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정당당한 불평을 직접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와드의 모든 회원은 감독과 진밀하게 일하는 경험을 누려야 합니다. 나는 나의 감독을 존경합니다. 그보다 더 나는 그를 친구로 여깁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의 양과 그가 와드 일로 보내야 할 시간을 생각하면 나는 그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한 마음껏 도와 드리고 싶은 심정이 간절해집니다. \*



## 나의 조상의 하나님

린 폴 보러스 글



**물** 문에 대해서 좀 배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물문 친구에게 물었을 때 그는 “도서관에 가 봐”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도서관에 가서 조셉 에프 스미스씨가 저술한 복음 교리라는 책을 찾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책을 꼭 읽고 싶다는 욕망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도서관에는 물문에 대한 책이 그 책 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교리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다른 것을 배우는 것에 나는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며, 기독교인은 언제나 나에게서 수수께끼의 인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예수가 화평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나에게서 이천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증오와 파괴와 유혈의 무서운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생

각되었읍니다. 그리스도가 진실로 모든 사랑과 의와 선의 화신이라면, 왜 그와 그가 주장하는 원리가 기독교의 중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예수에 대한 예배가 나에게서는 서로의 형제애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증오로 이끄는 것처럼 생각되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 교리를 읽게 된 동기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나의 지적인 호기심에서 물론에 대하여 좀 알고 싶었기 때문에서였읍니다.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읽기 시작하였는데, 첫 문장을 읽으면서 나는 마침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알게 되었읍니다. 이 책의 말씀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신 조상의 하나님이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체현하게 되었읍니다. 순간적으로 나의 마음과 정신에 확신이 왔읍니다. 드디어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드디어 여기에 사랑이 있고 평화와 있구나 라는 확신을 했읍니다. 나는 말할 수 없이 밝은 빛이 내 생애에 들어와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나는 마치 나쁜만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의 자녀 각 사람을 깊이 염려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놀라운 인식으로 가득차 있는 것처럼 느꼈읍니다.

복음 교리의 일부만을 읽었을 때 나는 이미 내 생애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읽고 있는 이 진리를 배우고 그대로 사는 것임을 깨달았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더 배울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저자가 인용한 몇 가지 참고 서적을 읽는 것이었읍니다. 그러

나 임프르브먼트 이라니, 대회 보고니, 청소년 인스트락터지니, 데저벳 주간 신문이니, 특별히 교리와 성약이라는 참고 서적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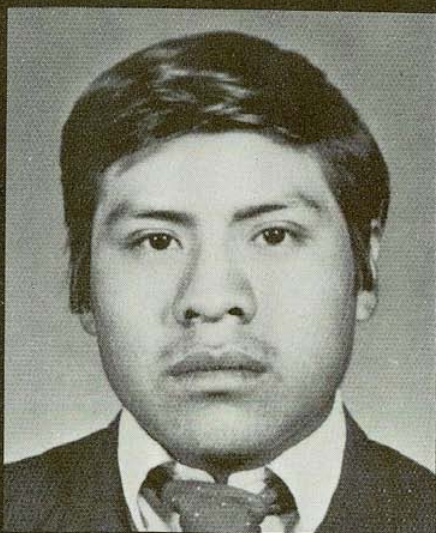
나는 그 근처에 물론 교회가 있을지 모르며, 그 교회의 회원이 말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읍니다. 나는 전화 번호부 책의 “교회”편을 찾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자동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 당시 나는 이미 결혼한 후였기 때문에 나는 남편에게 물론 교회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읍니다. 나는 예배당 입구에서 혹시 십자가가 보이던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으로 잠시 망설였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예배당은 따스하고 친절할 사람들로만 가득차 있는 것을 보자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쳤읍니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은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갖게 되는 안락한 느낌을 갖게 해주었읍니다.

예배 시간이 끝난 후,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각반에 참석하는데 우리에게도 어느 반에 참석하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읍니다. 후에 그 반이 구도자 반이었음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 주일에 배운 공과는 교회 조직에 관한 것이었읍니다. 감독의 직분이 언급되자, 교사는 감독이란 랍비와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아마도 나의 남편과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이 설명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반이 끝난 후 교사가 우리에게 집회소를 구경시켜 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제가

(29페이지에 계속)

# 다니엘 축



최초의 이 각치켈 선교사에게 있어서  
생활의 지표는 헌신입니다.

커트 하몬 글

나는 현대의 니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니엘 족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다니엘은 과테말라시선 교부에서 최초의 카치켈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있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그가 봉사하고 있던 곳에서 120리 떨어진 패찌샤라는 조그마한 도시로,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는 농사일을 하며 교회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었습니다. 집에서부터의 거리는 먼 거리가 아니었으나 다니엘과 그의 가족으로서 그를 선교사로 내보내는 데 따르는 재정적인 희생이 참으로 컸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수입은 연간 100불 내지 200불이었으나 다니엘이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게되자 가족은 2년 동안 90불을 마련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족 생활비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밟은 다니엘은 와이샤쓰 깃, 타이, 구두, 그리고 콩이나 토틸라스나 빵이 아닌 다른 음식 등과 같은 다른 문제를 이겨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이같은 새로운 환경에 속히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의 백성에게 부음을 전파하고, 축복을 주며, 선교사들에게 어려운 마야인들의 방안을 가르쳐 주는 일 등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축 장로는 재능이 많은 교사였습니다. 그는 위급한 때에도 나를 적이 놀라게 할 정도로 일을 해내었습니다. 그는 일과 사랑과 신앙과 간증으로 가르쳤으며 항상 그와 만나는 사람에게 행복과 만족을 끼쳐 주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한번도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였고 그들도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1976년, 나의 선교사 임기가 끝나갈 때 나는 다시 마지막으로 축 장로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에서 나는 주님을 믿는 신앙의 참된 의미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놀라운 본토 장로의 자기 국민에 대한 헌신을 보다 깊이 알 수 있었

습니다.

1976년 2월 4일 아침 중부 과테말라 고지에서 중미에서 일어났던 것 중 가장 무서운 천재지변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살인 지진은 24,000명의 인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지진 사건이 끝난 후, 나와 나의 동반자는 중부 고지에 있는 우리 장로들과 교회 회원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솔트레이크시티로 보내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명을 받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소도시를 방문하다가 드디어 다니엘의 집을 향해가고 있는 축 장로와 그의 동반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전 내내 상처입은 사람들과 도와 주고 죽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지명된 일을 모두 마치고 나서 이제 패찌샤로 향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따라 같이 갔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집터에 왔을 때, 우리는 무너져 버린 집에서 넋을 잃고 떨며 두려워하는 듯이 보이는 그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두 사람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니엘의 아버지는 여덟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어머니와 두 남자 동생이 지진으로 무너진 집벽에 깔려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축 지부장은 몹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었으며, 긴장과 압박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이나 울던 다니엘은 자신을 자제하면서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전에 가기 위해서 거의 20년 동안 들었던 회생을 기억하지요? 이제 우리가 현재와 영원을 위하여 인봉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은 다시 모이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포도원에서 그의 종이십니다. 상처받고 상한 백성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들을 다시 세우고 기도로 이끌어 주세요. 네?”

그런 다음, 교대의 니파이가 사막에



서 리하이에게 지도자로서의 용기를 주었듯이, 축장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축 장로는 지부 회원을 조직하여 재해 구조와 건물 재건축의 엄청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기동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다한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자, 이제 갑시다. 오늘 밤으로 솔트레이크로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시다.”

그의 말에 적이 놀라서 나는 그에게 다른 곳들은 우리끼리 돌아보겠으니 그는 집에 남아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겁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임무는 모든 곳에 있는 성도들과 장로들을 돕는 것입니다. 제발 나도 메러가 주십시오.” 이러한 부탁에 우리는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빨리 지나갔고 우리에게도 가야 할 도시가 세 군데나 있었으며, 그중 두 곳은 지진으로 길이 파괴되어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어 도시를 방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축 장로와 나는 코마라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에 근 50리나 되는 길을 뛰어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농담을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진으로 산사태가 일어나 위험한 지경까지 가파르게 된 깊은 계곡을 지나야 했습니다. 나는 계곡을 걸어서 돌아가자고 했지만 이곳 지형에 익숙해 있는 다니엘은 우리가 그 계곡을 뛰어 통과하지 않는 한 목적지에 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주님의 도움이 있으면 우리가 계곡을 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말라파에는 계곡의 위험한 상태 때문에 갇혀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신체적인 힘과 인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계곡을 위하여 특별한 축복을 간구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50리길을 줄곧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면서 그는 나에게 구세주께서 고대 미대륙의 주민에게 하신 말씀을 외워 주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들을 마음속 깊이 상고하였으며,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계곡으로 갔을 때 우리는 고요하고 평온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계곡은 전날 그대로의 상태였습니다. 코말라파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은 후 우리는 다시 파찌샤로 돌아왔고, 축 장로를 그의 아버지와 남은 가족과 함께 남겨 두고 나만 혼자 떠났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그 젊은 카치켄 인디언 선교사의 위대함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참으로 경험하기 힘든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생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니엘과 안 다음 나의 복음에 대한 나의 간증은 백백가 커졌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부친이 행한 대로 행하”(월 3:37)는 하였읍니다.

1976년 3월 30일, 그가 60여명의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폐허가 된 팻준시의 자갈과 흙 무더기를 치울 때, 다니엘은 지진의 여파로 인해 여러 차례 흔들리는 미진으로 흑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벽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의 사망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동료 선교사인 홀리오 살라사르 장로는 그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 장로는 파찌샤의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나는 그의 사망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왜 죽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였을 때 나는 이것은 아무도 주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사업을 돕게 하기 위하여, 특히 지진 중에 목숨을 빼앗긴 카치켄 주민들을 위한 영의 세계에서 사업을 돕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 조사 결과 선교 사업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오슨 스콧 카드

**최** 근 귀환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선교 사업이 젊은이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천여 명의 선교사들은 교회 모임 출석, 몇몇 중요한 계명에 대한 순종 교회에서의 봉사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참으로 훌륭한 것이었다.

귀환 선교사 중 97퍼센트의 귀환 선교사가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성찬식에 참석하고, 퍼센트의 귀환 선교사들이 한달에 적어도 세 번 이상의 성찬식에 참석하였다. 이 퍼센티지는 전세계 교회의 참석율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높은 것이다.

귀환 선교사 중 89퍼센트의 귀환 선교사가 교회의 부름을 받아들인 자였다.

결혼한 귀환 선교사 중 95퍼센트가 신전에서 결혼하였는데, 이것 또한 전체 교회 평균 치수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이다.

이같은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선교부와 집행 책임자인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칼로스 이 에시 장로는 간혹 높은 퍼센티지의 귀환 선교사들이 비활동으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고 설명하였다. “한두 명의 선교사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대단한 관심거리입니다. 하물며, 것처럼 많은 수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것처럼 큰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것이 사실 무근한 것이라며 그러한 이야기를 해명하기 위하여 선교사과의 에릭 오프 형제와 신권과의 큰 매드슨 형제가 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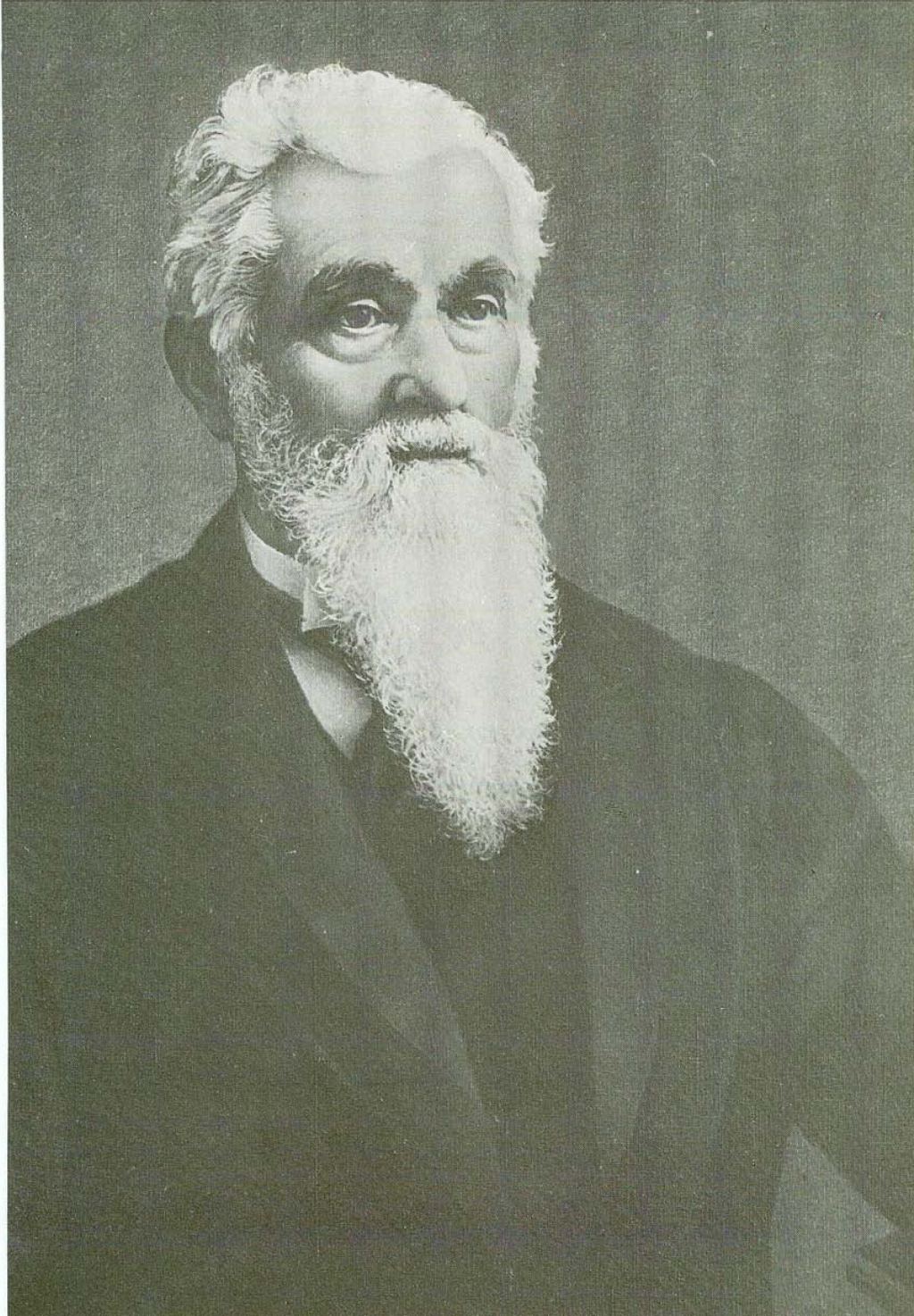
1, 757명의 귀환 선교사에게 설문지가

우송되었다. 이러한 설문지를 받은 선교사들 중 65퍼센트 이상의 선교사가 답을 보내 왔는데 일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백분율의 결과 보고였다. 그러나 잘못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각 열 다섯번째 귀환 선교사의 감독을 소집하여, 선교사 자신의 자기 평가와 감독의 눈에 비치는 선교사의 교회 활동을 비교해 보고, 또한 설문지에 답을 써 반송한 선교사들이 답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월등하게 활동적인지를 확인하여 보았다.

이러한 확인 군사는 원래의 조사 결과를 더 한층 확신시켜 주었다. 설문지를 반송하지 않은 선교사들은 약간 덜 활동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 차이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한 3퍼센트에 불과한 것이었다.

오늘날의 귀환 선교사가 활동적인 것은 물론이고 40년 전의 선교사들보다 더 활동적이었다! 1930년대에 실시되었던 선교사에 대한 조사 결과 당시의 귀환 선교사의 84퍼센트가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실업조를 바쳤던 것에 비하여 오늘날의 귀환 선교사 중 92퍼센트의 귀환 선교사가 완전한 실업조를 바치고 있고, 1936년에 모임 출석율의 83퍼센트였던 것에 비하여 오늘날의 귀환 선교사는 91퍼센트의 귀환 선교사가 매우 활동적이고, 97퍼센트의 귀환 선교사가 적어도 월례로 참석한다.

그러나 백분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에시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좋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좋은 결과를 보여 줄 것만을 기대했을 뿐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수일지라도 잃는다는 것은 역시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91퍼센트나 97퍼센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퍼센트의 선교사들이 귀환하여 활동적이고 충실한 말일성도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 율법에 순종해야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축복

로렌조 스노우(1814—1901)

교회 제5대 대관장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5대 대관장인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은 1814년 4월 3일, 오하이오주 만투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커틀랜드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누이 엘리자의 초청을 받아 히브리어 반에 등록하기 위하여 커틀랜드로 왔다. 오는 도중에 데이비드 더블류 패튼 장로를 만났으며, 그에게 복음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1836년 6월에 커틀랜드에서 존 보인튼 장로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다음해 봄에 로렌조 스노우는 첫번째 선교 사명을 띠고 전대와 주머니도 없이 오하이오주를 여행하였다. 그외에 그는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나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론경을 선사했고, 이태리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스위스와 하와이에서도 선교 사업을 실시하였다.

스노우 장로는 1849년 2월 12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도로 지지받았다. 윌포드 우드렐 대관장이 사망한 직후, 로렌조 스노우가 1898년 9월 13일에 대관장으로 성임되었다. 스노우 대관장은 십일조의 법을 재강조하신 것으로 잘 기억되고 있다. 그의 설교와 글은 인간의 지체의 영광과 인간의 미래의 가능성과 완전성을 강조하는 무한하고 끝이 없는 신앙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스노우 대관장은 1901년 10월 19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망했다.

1879년 4월 7일 월요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교회 대회에서 행하신

다음 말씀은 그의 설교집 제20권, 187—92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브람의 구십 구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세기 17:1) 이 말씀과 연관된 주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

오늘 아침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 나는 여러분이 신앙과 기도 가운데 관심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매우 중요한 약속을 주셨으며, 그 약속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일정한 요구 사항, 곧 하나님처럼 완전해져야 한다는 조건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세주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그와 그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그들도 온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일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려고 하시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고 주께서 그에게 주셨던 율법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주앞에서 완전의 상태에 이르도록 요구받았으며, 주님은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요구하였을 때, 주님은 아브람에게 이 요구 조건을 온전히 이행하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특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가르쳐졌으며, 그 복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하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니, 그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주 앞에서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주 앞에서 행할 신앙을 지녔을지라도 그의 신앙이 심하게 시험당한 때가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한 바를 실천하였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율법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야말로 우리가 육신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이해력과 지성과 자비를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큰 특권을 누릴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해의 왕국에 이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주님은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그의 자녀이며, 우리가 다시 그의 면전에 돌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동기, 욕망, 느낌, 감정을 성결케 하여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고 모든 면에서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어떠한 우리 자신의 뜻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없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자신의 영역내에서 완전한 사람이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에 굴복하기 쉬우며, 다소 그러한 면을 등한시하여 과오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께서 우리 능력이 닿는 범위 안에서 이 사업을 성취할 수 있는 방안을 두셨다는 것을 아는 이상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모독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구세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완전이라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하나 다른 면에서는 완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사유함을 위하여 침례를 받았을 때, 그것에 관한 한 우리는 완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 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2-3)

말일성도는 이러한 완전의 상태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거하기에 합당한 자녀로서 그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새롭고 영화롭게 된 몸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낮은 몸이 변화되어 그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 3:21 참조) 이것이 우리의 기대요 소망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이렇게 자문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까? 말일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청결하신 것처럼

럼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하려 하지 않는다면... 일상 생활에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털끝만치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매주, 매달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올바르게 처신하며, 열심히 온유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간혹 시험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시험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배가된 힘과 결단력을 갖고 또 다시 노력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그 밖의 다른 위대하고 거룩한 성인의 일생을 읽어 본다면, 의롭게 생활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음을 틀림없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게 되었을 때 시험에 지고 말았다 해서 낙담해서는 안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범했던 잘못을 진실로 회개하고, 가능한 한 보상한 다음, 하나님께 앞으로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는 매일 하나님전에서 완전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일생에 큰 시험이 닥친 시기가 왔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가혹한 시험은 생각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의아들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바로 이 아들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성품을 보임으로써 그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과 성실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우상을 섬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우리처럼 육적인 것과의 투쟁을 겪고 지기도 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얻을 수 있었다고 믿는 것이 타당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빌립보서 2:5-6)

이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순결케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씩의 오류와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능한 한 조속히 극복해야 하며, 이런 느낌을 자녀의 마음에 심어 주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려서부터 자라게 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올바르게 처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남편이 하루 동안 아내와 말다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잘한 것이며 그만큼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로 잘하라고 권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가 다음날에는 실패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세번째 날도 역시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처서나 구세주 곁에 서도록 자신이 얻었던 그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에 낙

담했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참음으로써 아무 것도 잃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되었으며 우리에게도 역시 그의 경험을 통하여 유익을 주었습니다.

말일성도는 옛 사도들이 분명하게 설명한 이런 큰 뜻을 잘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모든 사람에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분을 교회에 두셨습니다. 곧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 등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안내자인 성령을 부여하시어 하나님의 천사로서 우리 편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주고, 역경이 우리의 길을 가로 막을 때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주게 하였습니다.

일단 우리가 받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정복하고 메시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게 하며, 우리 가족 또는 우리가 유대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대신에 실로 지상의 소천국을 이룩하도록 도울 권세를 실제로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이미 싸움의 반은 이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기 쉬운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는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지상에 보내 주신 이유와 우리가 받는 부름의 거룩한 뜻을 곧잘 망각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한낱 부질없는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 곧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이기게 해주는 도움을 마다 하고 세상적인 수

준으로 자신을 낮추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리라는 결심을 키우지 않는 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세주께서 고대 성도들에게 주신 권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우리와 같은 감정과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었으며, 주님은 그들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은 요구하지 않으셨으며 앞으로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운데에서, 악과 부패로 가득찬 사람들 가운데에서 근원의 복음을 전파하려 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특별히 이러한 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그들뿐 아니라 교회에 속하여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는 모든 남녀는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이 조건대로 생활하려는 열의를 키워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생활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젊은이나 노인에게 모두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빛과 예지가 그들의 용모에서 빛날 수 있는 과정을 택하여 인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세상의 어리석음과 허영 그리고 인간의 잘못과 약점을 초월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진실로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시어 여러분의 일거 일동과 모든 임무 수행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영이 생명수의 샘처럼 영원토록 솟아 나와 일생 동안 여러분을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얼음을 깨고

진 칩프민

안톤은 현관문을 나서 자갈길로 내려 서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몸을 돌려 아내를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라고 그는 아내를 두고 말하였었다.

“어서 나와요, 여보”

그의 아내가 현관문을 나섰다. 그녀는 털 목도리와 두꺼운 외투로 온 몸을 감쌌다. 2월의 밤은 매섭게 추웠다. 그들이 가는 곳은 집에서 좀 떨어진 해변가였다. 아이들이 아내, 아이번을 뒤따라 나왔다. 토르발드와 오스트라는 아직 칩레를 받을 나이는 안되었으나 부모님들의 칩레에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안톤만이 별로 흥분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덴마크, 알브르그의 깨끗한 거리를 담담한 심정으로 걸었다.

이제는 겨울의 은백색으로 덮혀 있는 작은 정원을 지나면서 그는 거의 이년 전 최초로 선교사들을 만났을 때의 일을 더듬어 보았다. 그것은 1893년 여름이었다. 그가 나무의 가지를 치고 있을 때 선교사들이 다가와 이야기했다.

“그 선교사들은 그날 내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 주었지. 모든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았어.”라고 회상했다. 친친히 발길을 옮기면서 그는 또 다른 것도 생각하였다. “그 다음날 목사님이 찾아

오셨어.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선교사들이 하던 이야기를 들려 주었지. 목사님은 선교사들이 해 준 이야기를 모두 산산이 부서뜨리고는 자신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셨어. 그 다음에 다시 장로들이 왔을 때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였지. 장로들은 다시 복음을 가르쳐 주었고 씨앗을 또 다시 심어 주었지. 결국 나는 나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칠혹같은 밤이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가까이 붙어 걸었다. 토르발드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고, 귀여운 조그마한 오스트라는 아이번의 손을 꼭 붙들었다. 안톤은 토르발드를 내려다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였다. 그는 그가 먹이던 황소와 겨울에 심었던 나무 싹, 그리고 집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심한 눈보라를 만나 죽은 누이를 생각하였다. 그는 1800년대 즉 독일과 전쟁하던 때 아홉 식구를 부양할 길이 없어 걱정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였다. 그는 새벽 2시부터 밤 11시까지 농장에서 일을 돕던 것을 기억하였다. 밤이면 잠자리에 누워 울던 것을 기억하였다. “나는 왜 태어났나?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



앞에는 아무런 보람도 없는 끝없는 일만 있구나.” 차가운 한기가 안톤의 얼굴을 휘감자 안톤은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되었다. 차가운 바람은 그에게 빙하를 생각나게 해 주었다. 빙하기의 빙하가 덴마크의 지형을 주름지게 하여 농사짓기에 알맞게 만들어 놓았다고 배웠던 것이 생각났다.

그는 들 넘어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의 돛대를 볼 수 있었다.

그와 그의 가족은 그들이 칩체받기로 한 장소에 거의 다 왔다. 외로움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엄습해 왔다. “나의 조국, 나의 조상,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었는데… 이역 만리 타국에서 시작된 종교 때문에 나에게 대한 그들의 신뢰를 저버려야 하는 것인가?”

그때 그의 가족은 마지막 구획의 모퉁이를 돌고 있었다. 그들은 얼음으로 덮혀 있는 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안톤은 속에 입고 있던 흰색 모피의 촉감을 느꼈다. 그는 병을 앓은 후부터 줄곧 이 옷을 입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던 것이었다. 병! 그렇다. 그는 그의 간증이 싹트게 된 동기를 기억했다. 그는 폐염으로 12개월 동안 생사의 기로에서 투병하다가 치유되었다. 장로들이 신앙과 병자 기름 축복이라는 특별한 축복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의 권고에 순복하고 믿었다. 그후 곧 안톤은 진리를 추구하는 생각을 방해하고 있던 것을 단호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교회 목사에게 자기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좋은 이웃 친구였었다. 그러나 그가 물론에 가입하겠다는 결심을 함과 동시에 그들사의 우정은 끝났다.

알보르그에 살고 있는 회원은 모두

해변가에 모여 있었다. 몇몇은 등잔을 들고 있었다. 소수의 그룹이었으나 즐거운 그룹이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미소를 하였다. 그러나 안톤은 여전히 잠잠히 있었다.

공립학교에서는 소수 물론 어린이에 대한 편견이 어린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것이어서 자녀를 위하여 사립학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안톤은 잘 알고 있었다.

찬송이 끝나고 개회기도가 시작되었다. 선교사들은 쉰 형제 자매에게 그들이 칩체반을 빼 영하의 기온으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한 축복을 부탁하였다. 얼음을 깨뜨려 구멍을 만들었다. 안톤과 그의 아내 아이빈을 위한 성스러운 의식이 집행되었다. 회원들이 이 두 명의 새로운 회원을 악수와 입맞춤으로 환영했고 곧 집으로 가서 몸을 녹이게 하였다. 안톤이 예기치 못했던 경험을 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집으로 오는 길에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의 뛰다시피하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줄곧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무거운 걱정의 짐이 없어졌다. 그는 자기가 올바른 일을 했음을 알았고, 더우기 그는 이생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다음날 전의 친구들과 목사를 찾아 가 나의 간증을 말해 주었다. 나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온 세상을 개종시킬 수 있을 것만 같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그는 후에 기록하였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칩체를 받음으로써 느꼈던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를 바랐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훌륭한 가족을 위하여 아직도 더 많은 기쁨과 지식이 쌓여 있다는 확신이었다.” \*

